

##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 재고: Urbain Faurie

장진성<sup>1</sup>, 최병희<sup>2\*</sup>, 김휘<sup>3</sup>, 이지연<sup>2</sup>

<sup>1</sup>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및 수목원

<sup>2</sup>인하대학교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sup>3</sup>목포대학교 생명공학부 생약자원전공

프랑스 신부인 Faurie는 1901년, 1906년, 1907년 등 3회에 걸쳐 한반도의 부산, 서울, 인천, 남포, 평양, 원산, 강원도 금강산, 제주도 등을 돌면서 많은 종의 표본을 채집하였는데 당시 채집된 많은 표본들은 T. Nakai, H. Léveillé의 주요 연구 표본으로 인용되었으나, 표본에 기재된 로마자 지명은 현재의 지명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조사에서는 문헌에 기재된 Faurie의 표본을 근거로 당시에 기록된 지명을 현재지명으로 표시하고, 문헌과 표본을 근거로 한반도에서의 Faurie의 채집행적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였다.

주요어: 식물표본, 채집지명, U. Faurie, H. Léveillé, T. Nakai.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한반도를 방문해서 식물채집을 활발하게 시도하였는데, 이런 채집품들이 초기 한반도 식물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오, 1984; 정 등, 1986). 그러나, 채집자에 따른 표기 언어의 차이나 지명의 변화로 표본이나 문헌의 지명을 현재 지명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채집지는 식물의 분포를 밝히거나 식물동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서, 분류학 연구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반도 채집지명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초까지 한반도에서 채집을 시도한 외국인들의 채집기록을 정리해서 지명과 행적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하며, 특히, 최초의 체계적인 한반도 식물 채집가였던 Urbain Faurie 신부의 국내 채집행적을 정리함과 동시에 채집지명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Faurie 신부는 한국을 3회 방문하여 많은 식물을 채집하여, 후에 H. Léveillé와 T. Nakai 등의 한국

---

\*교신저자: 전화: (032) 860-7695, 전송: (032) 874-6737, 전자우편: bhchoi@inha.ac.kr  
(접수: 2004년 5월 17일, 완료: 2004년 5월 31일)

식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Faurie의 채집활동:** Père Urbain Faurie(한국명 표기, 방포리: 이, 2003)는 프랑스 리용 남부 출신으로 1847년 1월 1일 (또는 1846년 12월 31일: Ueno, 1973) 태어나 1873년 신부자격을 취득하였다. 그해(1873년) 27세의 나이로 일본에 도착하여 68세(1915년)에 대만에서 채집 여행 중 병사할 때까지 주로 일본에서 왕성한 채집활동을 하였다(Hayata, 1916; Koidzumi, 1936, 1943; Sato, 1938; Ueno, 1973; Kitagawa, 1979; 오, 1984).

당시 L. Savatier의 식물표본을 기초로 일본식물을 연구하고 있었던 파리박물관의 A. Franchet(1834-1900)는 Faurie에게 일본 식물에 대한 채집을 요청하였는데(Koidzumi, 1936), 1900년 Franchet가 죽은 후에는 주로 H. Léveillé에게 채집품을 보냈다.

Faurie는 일본의 靑森(Aomori)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주로는 일본의 東北지방과 北海道에서 채집활동을 하였으나,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지역과 대만, 쿠릴열도, 사할린, 하와이 등지에서도 채집하였으며, 한반도에도 3회 방문하였다(Hayata, 1916; Koidzumi, 1936; Sato, 1938). 그의 채집행적은 지의류를 연구한 Sato(1938)가 A.M. Hue의 "Lichenes Extra-Europaei"에 근거하여 정리한 바 있으나, 여기에 한반도에 대한 것은 1901년 만이 정리되어 있다. 이로보아 Faurie가 1906년과 1907년 한반도 방문 때는 지의류채집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채집품과 연구:** Faurie의 일본에서 신분류군으로 채집된 종류로는 현화 892분류군, 양치 113분류군을 포함하여, 총 1300여 분류군(선대류, 지의류까지 포함)에 이른다 (Koidzumi, 1936). Faurie는 유럽 등으로 보낸 표본의 복제품 1세트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병사 후에 그의 유품은 일본의 사업가 Okazaki (岡崎忠雄)가 구입해서 京都大學(KYO)에 기증하였으며, 그 중 식물표본이 62440점이었다 (Koidzumi, 1943).

유럽 등지로 보내진 그의 채집표본은 Paris Musé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P)에 현화식물 22468점 (Kitagawa, 1979)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Herbarium, Conservatoire et Jardin botaniques de la Ville de Genève (G), Herbarium, Royal Botanic Gardens, Kew (K), Herbarium, Missouri Botanic Garden, Saint Louis (MO), Herbarium, Botanischer Garten und Botanisches Museum Berlin-Dahlem (B), Herbarium, V. L. Komarov Botanical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Russia (LE), Harvard University Herbaria (GH), Herbarium, Arnold Arboretum, Harvard University (A), Herbarium, The Natural History Museum (BM)에 소장되어 있다 (오, 1984).

Faurie의 채집품이 기록된 문헌을 보면 벼과(Poaceae), 사초과(Cyperaceae), 골풀과(Juncaceae), 곡정초과(Eriocalulaceae), 고사리류(fern and fern allies)와 지의류, 선대류 등 초본류가 많이 채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Faurie의 채집품은 H. Christ(양치류) 등 각 분류군의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오, 1984; 정 등, 1986).

한 예로 1906년 6월 23일 금강산에서 Faurie에 의해 채집된 표본(no. 398)이 Léveillé에 의

해 신종 *Lathyrus varioti* H. Lév. (in Repert. Spec. Nov. Regni Veg. 7: 230, 1909)로 발표되었고, 그 기준표본은 각각 영국의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E), 일본의 Kyoto University(KYO), University of Tokyo (TI)와 러시아 V. L. Komarov Botanical Institute (LE)의 표본관에 나뉘어 보관되어있다 (Fig. 1).

Nakai(1911)가 언급한 Faurie의 한반도표본은 약 320여점이 넘는다. 현재 인용된 표본만을 가지고 총 표본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Lévillé(1908a, 1908b, 1908c, 1908d, 1909, 1910a, 1910b, 1910c)의 문헌을 조사하여 보면 1907년 5월 목포에서 채집된 번호가 1556번이고 9월 다시 목포에서 채집된 번호가 2123번인 것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채집된 번호를 보면 약 600여점이 이 해에 채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채집된 번호와 사할린, 하와이에서 채집된 번호를 대조해 보면 작은 숫자나 큰 숫자가 엇갈려 기록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채집번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채집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Faurie가 한국에서 채집한 표본 수는 약 2000여 점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올바른 숫자라면 3회 조사시 채집한 표본수는 5000여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06년 채집 번호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 채집번호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인용된 표본과 채집 장소를 보면 매일 일정한 표본을 조사하기 보다는 아마도 포교나 기타 다른 업무와 관련된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며칠씩 채집을 시도한 듯 하다.

**한반도에서의 채집행적:** Faurie가 생애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내고 채집활동도 왕성히 하여, 그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일본에 남아 있는데 비해(문헌정리 Kitagawa, 1979), 한반도에서의 활동기록은 미약하다. 한반도에서의 그의 채집 행적은 Sato(1938), 오 (1984), 정 등 (1986), 이 (2003)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다.

Faurie는 54세인 1901년에 한반도를 1차 방문한 후 1906년(59세)과 1907년(60세) 등 3회 방문하였다. Nakai(1911)가 기재한 Faurie의 표본 채집 년도 중에 극히 일부 표본이 1902년(p. 296) 1904년(p. 416), 1908년 (p. 504, p. 507), 1909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Nakai의 오기재로 판단된다. 이러한 오기재는 Nakai(1911)가 기록한 Komarov의 채집날짜와 학명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의 Faurie의 한반도 채집일정과 지명은 Nakai (1909, 1911)의 Flora Koreana I & II 와 Lévillé(1907, 1908a, 1908b, 1908c, 1908d, 1909, 1910a, 1910b, 1910c)에 인용된 표본을 근간으로 정리하였다. 각 문헌에서 Faurie가 채집한 표본에 대해 기재한 지명을 그대로 옮겼으며, 이에 대해 채집날짜 순으로 현재지명과 출처에 대해 Table 1에 제시하였다.

Faurie의 채집기록을 근간으로 한반도 여행 행적을 보면 1901년 5월 제물포와 5월 24일에 서울에서 처음 채집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 여행 경로를 보면 배로 일본 長崎(Nagasaki)에서 대마도를 거쳐(Sato, 1938) 인천(제물포)에 도착 후 서울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 5월 말에는 수원에서 채집을 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6월 말 배로 평안남도 진남포 (남포시)로 이동 후 평양을 거쳐 7월 말까지 강원도 일대와 금강산, 원산 지역을 방문한 후 진남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 듯 하다. 그해 8월에 원산을 다시 갔다가 9월 말에는 진남포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인천과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

1906년 여행은 1901년과는 달리 부산에서 직접 서울로 육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이는 1905년 경부선이 완성된 후여서 기차를 통해 여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5월 말에 부산에 도착하여 대구, 수원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후 6월 말에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동한 후, 원산, 평양에서 채집한 후 9월 초까지 진남포에 머물렀으며, 9월에 제물포(인천)로 돌아 온 후 9월 말에 목포를 거쳐 제주도로 향하였다. 당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머물던 33세의 Emile Taquet 신부와 함께,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채집하면서 식물 채집법을 Taquet신부에게 전수한 것으로 생각되며, 채집된 표본은 일본으로 갖고 돌아간 것으로 추정 된다(이, 2003).

1907년의 여행은 주로 제주도에 한정되었는데, 5월 말에 목포를 거쳐 제주도에 도착한 후 Taquet신부와 함께 여러 번 한라산에 오르며 채집하고, 목포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시점은 Nakai(1911)의 표본기록에는 8, 9월에 목포 표본이 인용되고 있으나, 이(2003)는 9, 10월에 한라산에서 한라송마, 두메대극, 왕모람 등을 채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906년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Faurie신부와와의 채집이 Taquet신부가 한반도 식물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게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들의 채집품은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매각되어 포교활동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Kitagawa, 1979).

전체 채집 일정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현재 여기 제시된 날짜는 문헌에 의존한 것으로 표본의 직접적인 조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Faurie는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식물채집가 였는데, 식물채집에 관한 일화들이 당시 대만식물연구를 놓고 경쟁하였던 일본인 Hayata(1916)의 기록에 잘 남아있다. 특히 채집도구만 지참하고, 나무 위나 바위틈에서 밤을 지냈다는 기록들이나, 채집된 식물을 건조하기 위해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표본을 보살폈다는 기록들을 보면 분류학 연구에 이용되는 식물표본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 감사의 글

Faurie에 관한 문헌 및 자료조사에 협조해주신 정규영박사(안동대), 석동임(東京大)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Table 1. Collection dates and sites by U. Faurie in Korea (<sup>1</sup> = Lèveillé and <sup>2</sup> = Nakai)

Collection date	Collection locality	Present name of place
1901, May ?	Chemulpo <sup>2</sup>	Jemulpo (Incheon)
May 24-26	Seoul, Namsan <sup>2</sup>	Seoul, Mt. Namsan
May 28, 30	Syou-ouen (Syö-uön) <sup>2</sup>	Suwon-si (Prov. Gyeonggi)
Jun. ?	Seoul <sup>2</sup>	Seoul
Jun. ?	Chinnampo <sup>2</sup>	Nampo-si (Prov. Pyeongannam)
Jun. ?	Phyöng-an <sup>2</sup>	Provs. Pyeongannam & Pyeonganbuk
Jun. ?	Kang-uön <sup>2</sup>	Prov. Gangwon
Jun. 28	Kumgangsán <sup>2</sup>	Mt. Geumgang (Prov. Gangwon)
Jul. ?	Kang-uön <sup>2</sup>	Prov. Gangwon
	Kan-Ouen-To <sup>1</sup>	
Jul. 6	Ouen-san <sup>2</sup>	Wonsan-si (Prov. Hamgyeongnam)
Jul. ?	Chinnampo <sup>2</sup>	Nampo-si (Prov. Pyeongannam)
Jul. 24	Yöng-deung-pho <sup>2</sup> ?	Yeongdeungpo-gu (Seoul)
Jul, ? Aug 22, 24	Mt. Nai-piang <sup>2</sup>	?
Aug ?	Ouen-san <sup>2</sup>	Wonsan-si (Prov. Hamgyeongnam)
Sept 2	Ouen-san <sup>2</sup>	Wonsan-si (Prov. Hamgyeongnam)
Sept 3	Fossa <sup>2</sup>	?
Sept 4	Kang-uön <sup>2</sup>	Prov. Gangwon
Sept 22	Chinnampo <sup>2</sup>	Nampo-si (Prov. Pyeongannam)
Sept 22-25	Seoul, Namsan <sup>2</sup>	Seoul, Mt. Namsan
Sept 28	Chemulpo <sup>2</sup>	Jemulpo (Incheon)
Oct 4	Fusan <sup>2</sup>	Busan
1906, May 18-27	Fusan, Pomasa	Busan, Temple Beomeosa <sup>1</sup>
May 30	Taikou <sup>1</sup>	Daegu
May 31	Syou-Ouen <sup>1</sup>	Suwon-si (Prov. Gyeonggi)
Jun ?	Seoul, Namsan <sup>1</sup>	Seoul, Mt. Namsan

Table 1. Continued.

Collection dates	Collection locality	Present name of place
Jun 20-24	Diamants <sup>1</sup> (Kumgangsan) <sup>2</sup>	Mt. Geumgang (Prov. Gangwon)
Jul ?	Ouen-san <sup>1,2</sup>	Wonsan-si (Prov. Hamgyeongnam)
Jul ?	Phyöng-yang <sup>2</sup> Hpyeng-Yang <sup>1</sup>	Pyeongyang (Prov. Pyeongannam)
Jul ?	Chinampo <sup>2</sup>	Nampo-si (Prov. Pyeongannam)
Aug ?	Chinampo <sup>2</sup> Chinnampo <sup>1</sup>	Nampo-si (Prov. Pyeongannam)
Sept 1-8	Chinampo <sup>1,2</sup> Chinuampo <sup>1</sup>	Nampo-si (Prov. Pyeongannam)
Sept	Chemulpo <sup>1,2</sup>	Jemulpo (Incheon)
Sept 25	Mokpo <sup>1</sup>	Mokpo-si (Prov. Jeollanam)
Sept 25 - Oct 25	Quelpaert <sup>1,2</sup> Choi-jyu, Tchedshu <sup>2</sup>	Prov. Jeju
1907, May 25	Mokpo <sup>1,2</sup>	Mokpo-si (Prov. Jeollanam)
May - Aug	Quelpart (Hallasan) <sup>2</sup> Hallaisan <sup>1</sup>	Prov. Jeju, Mt. Halla-san
Aug	Mokpo <sup>2</sup>	Mokpo-si (Prov. Jeollanam)
Sept 21	Mokpo <sup>2</sup>	Mokpo-si (Prov. Jeollanam)

## 인용문헌

- Christ, H. 1908. Filices Coreana novae.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5: 284-285.
- Hayata, B. 1916. Père Urbain Faurie. Bot. Mag. (Tokyo) 30: 267-273.
- Kitagawa, N. 1979. Literature on Urbain Faurie. Acta Phytotax. Geobot. 30: 93-98 (in Japanese).
- Koidzumi, G. 1936. A historical sketch of herbal and botanical investigations on the flora of Nippon. Acta Phytotax. Geobot. 5: 1-26 (in Japanese)
- \_\_\_\_\_ 1943. A brief history of the laboratory of systematic botany. Acta Phytotax. Geobot. 13: 310-313 (in Japanese)
- Lèveillé H. 1907. Decades plantarum novarum I.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4: 225-334
- \_\_\_\_\_ 1908a. Carices novae coreanae. Repert. Feddes Spec. Nov. Regni Veg. 5: 239-241.
- \_\_\_\_\_ 1908b. Decades plantarum novarum IV/V.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5: 8-12
- \_\_\_\_\_ 1908c. Decades plantarum novarum VII.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5:194-195
- \_\_\_\_\_ 1908d. Decades plantarum novarum VIII-X.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5: 279-284
- \_\_\_\_\_ 1909. Decades plantarum novarum XX, XXI.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7:197-200
- \_\_\_\_\_ 1910a. Decades plantarum novarum XXXIII.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8:258-259
- \_\_\_\_\_ 1910b. Decades plantarum novarum XXXIV-XXXVII.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8: 280-286
- \_\_\_\_\_ 1910c. Decades plantarum novarum XXXIX.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8: 401-402
- Nakai, T. 1909. Flora Koreana I. Jour. Coll. Sci. Imp. Univ. Tokyo 26: 1-304.
- Nakai, T. 1911. Flora Koreana II. Jour. Coll. Sci. Imp. Univ. Tokyo 31: 1-573.
- 佐藤正己 (Sato, M.) 1938. U. Faurie의 植物採集旅行의 記錄. J. Jap. Bot. 14: 699-701.
- 上野益三 (Ueno, M.) 1973. 日本博物學史. 平凡社
- 오수영 1984. 한국의 유관속시물분류학에 관한 사적연구 (I) 경북대학교 논문집 38: 17-197.
- 이창복 2003.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식물연구. 이창복, 우리의 자생식물을 찾아서. Pp. 233-239. 국립수목원, 경기도.

정영호, 최홍근, 선병윤, 정영철, 김기중. 1986. 관속식물연구사. 정영호, 한국식물분류학사개설. Pp. 1-190. 아카데미서적, 서울.



**Reexamination on foreign collectors' sites and exploration  
routes in Korea  
- with respect to U. Faurie -**

**Chang, Chin-Sung<sup>1</sup>, Byoung-Hee Choi<sup>\*2</sup>, Hui Kim<sup>3</sup>, Ji-Yeon Lee<sup>2</sup>**

<sup>1</sup>The Arboretum and Dept. of Forest Sciences,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sup>2</sup>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Korea, <sup>3</sup>Department of Pharmacognostic Resource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 534-729

**Abstract**

Father, U. Faurie visited Korea (Busan, Incheon, Nampo, Pyongyang, Seoul, Wonsan, Mt. Geumgang of Gangwon-do, and Jeju-do) three times for his plant collections (1901, 1906, and 1907). During his plant explorations, Faurie collected many specimens which were investigated and studied by T. Nakai and H. L veill  later. Unfortunately all collection sites were simply described in his collection sites in Romanized character, so that it is difficult to pinpoint those sites using the current or old Korean map. From this study, many locality names were reviewed based on his own collections and literatures, and those were listed as the order of his collection dates

Key words: Locality name, U. Faurie, H. L veill , T. Nakai, plant specimen.

---

\*Corresponding author (Phone) 032-860-7695, Fax) +832-874-6737, E-mail: bhchoi@inha.ac.kr